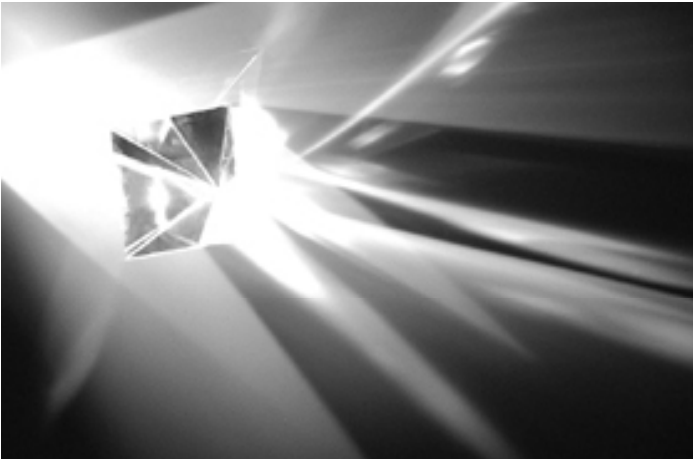


궁극의 가치

| 용타스님 |

“색즉시공! 어떻게 색이 곧 공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마음이 걸려 있다가 꿈속의 한 마디에 풀려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프리즘을 없애라!”(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13부)

059. 돈망의 에센스

자, 어떠한가? 지금 여기 이 순간 무한 오케이인가?

어떠해야 무한 오케이일까?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고, 지금 이 순간 심신의 느낌을 고쪽이든 낙樂이든 사捨이든 그대로 수용하면 되며, 아공我空 법공法空으로 천하가 비었으니 아무것에도 관심 갈 것 없이 그냥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 의식이 안으로나 밖으로나 일체의 것에 기대지 않고 있을 때의 의식 상태이어야 하며, 지금 이 의식이 일체의 것에 걸림이 없이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이 상태는 생각이나 상상想像으로는 안 된다. 느낌으로 수렴收斂되어야 한다. 그냥 있음으로 해서 이에 상응하는 느낌을 느껴야 하고, 기초수基礎受를 수용함으로 해서 따라오는 느낌을 느껴야 하며, 아공법공我空法空을 관행觀行함에 따른 느낌을 느껴야 한다. 무한 오케이인 마음 상태를 느낌으로 수긍首肯하기 위해 더 설명을 해야 하겠는가?

아니,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이 지극한 행복, 지극한 해탈이기를 바라는가? 진정으로 이 순간이 지극한 해탈이기를 바라는가? 일단 이 간절한 소망所望이 있는 분에게 이 용타단상龍陀斷想은 지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순간 진정으로 지고한 자유自由를 원한다면 돈망삼觀頓忘三觀이라 하는 세 가지 관행觀行을 섬세하게 접근해 들어가 보라. 자가류自家流는 일단 금물禁物이다. 돈망이라는 체험 상태만 같으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체험상태가 같다 하더라도 그 체험을 끌어오는 조건이 다름으로 해서 그 체험의 안전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백발백중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설혹 자가류가 돈망체험의 안정성에 하자瑕疵가 없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의 안전 방편을 확보한다는 것은 좋을 일이다. 아무튼 지뢰地雷밭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지뢰 전문가의 안내를 잘 받아야 하듯 돈망頓忘이라는 의식경계를 경험하려면 돈망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안전한 조건을 통해 돈망頓忘이라는 의식意識(마음)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한 오케이를 경험하는 것이요, 니르바나를, 해탈을 경험하는 것이다.

돈망의 에센스 문제로 돌아가 보자. 돈망을 경험하는 분이 있다면 돈망의 에센스가 무엇이나는 물음을 받았을 때 날카롭게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돈망의 에센스는 무엇일까? 단적으로 답해서 ‘무한감無限感’이다. 해탈감解脫感이라 해도 되고, 니르바나의 느낌이라 해도 좋다. 앞에서 일렀듯이 돈망의 에센스 차원 니르바나의 느낌체험에서 하자瑕疵가 없다고 해도 이 에센스를 빚어내는 조건의 다름에 따라 그 안전성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돈망삼관頓忘三觀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그 무한감無限感에 다가가기를 권장한다. 그렇다면 돈망의 에센스가 무엇이나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은 ‘돈망삼관頓忘三觀을 통해 체험되는 무한감無限感’이라 답하면 좋을 것이다.

060. 궁극窮極의 가치價値

얼마 전에 인연되는 600백여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도問道(진리를 위한 질문)를 문자메시지로 내보내봤다. “무언가를 실현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실현의 목적어가 되는 ‘무언가’를 ‘가치’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가치에는 보다 목적이 되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자, 가장 목적이

되는 궁극의 가치에 대해 사유해 보셨는가? 굳이 답을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묻는다. ‘궁극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문도問道에 대한 다양한 답들이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어느 분의 작품 하나를 나누어 보고 궁극의 가치에 대해 논의해보려 한다.

큰스님께. 9. 28일 문도에 대한 답글 올립니다.

‘궁극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기보다 이 주제를 깊이 사유, 음미해보라는 것이 출제자의 의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답을 떠올려 보면서 이것이 진정 궁극의 가치인가 거듭 되씹어보았습니다. 그것 말고 인생에 있어 보다 목적이 되는 궁극의 가치는 정말로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가지고 있는 궁극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제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아 좋습니다.

그냥 있음으로 해서 무한 행복과 무한 자유로움의 니르바나를 느끼며 사는 돈망頓忘이 궁극의 가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확연해지고 ‘그냥 깨어있는 이 의식’을 느끼며 사는 것만으로 다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절대적인 만족감이라면 이것 말고 무엇을 궁극의 가치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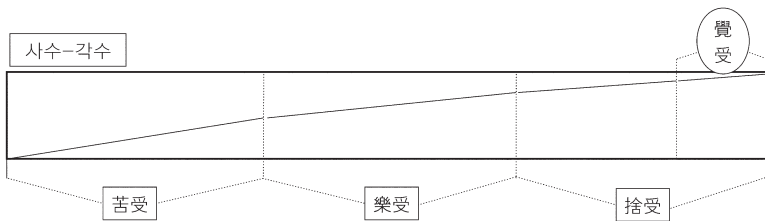
그냥 있음으로 해서 느껴지는 이 무한한 자유감과 무심한 평화감을 모르고 살았던 때의 삶을 떠올려봅니다.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매달리면서 그것에 의존해야만 견딜 수 있었던 그 삶은 삶 자체가 피로요, 중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있음만으로 무한 행복감을 느끼는 돈망頓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가되 마음의 갈등과 강박감이 없이 가볍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활기 있게 살아갑니다. 궁극의 가치?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돈망頓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분은 내가 잘 아는, 돈망을 이미 파지把持한 분이다. 돈망을 깨달은 이라면 궁극의 가치를 논함에 있어 ‘돈망頓忘’이라 답함에 별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돈망을 파지했든 아니 했든 궁극의 가치를 사유해보는 것은 지극히 좋을 것이다.

궁극의 가치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가치’란 행복에 도움 되는 것일 터요, ‘궁극의 가치’라 하면 다른 가치를 수단화시키는 목적가치일 것이니 궁극의 가치에 가장 상응하는 가치는 바로 ‘행복’ 자체일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요, 행복이란 느낌이다. 안 좋은 쪽 느낌을 불행이라 하고 좋은 쪽 느낌을 행복이라 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어 있는 전제 신념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곧 행복행은 고락사苦樂捨, 삼수三受 권의 이야기이므로 ‘사수-각수’라는 위의 도식圖式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느낌 수준에서 행복행을 논의할 때 궁극의 가치는 고수苦受보다는 낙수樂受, 낙수樂受보다는 사수捨受, 사수捨受보다는 각수覺受 쪽에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사수捨受는 고수苦受도 낙수樂受도 아닌 느낌이다. 조

견훤대¹⁾가 있든 없든 느낌 자체가 고통도 낙樂도 아닌 무덤덤한 느낌이 사수捨受이다. 사수捨受 중에 무위無爲 경계를 조건으로 해서 드러나는 느낌은 일반적인 사수捨受와는 차별화를 두어 각수覺受라 한다. 곧 사수는 단순한 사수捨受와 깨달음을 조건으로 하는 각수覺受로 나누되 편의상 단순한 사수를 사捨1로, 각수覺受를 사捨2로 표기하기로 하자. 중생으로부터 부처에 이르기까지 한 느낌이 있을 뿐이며, 정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 고통-낙樂-사捨1-사捨2를 한 느낌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 보아 궁극의 가치는 최고의 행복해탈인 사捨2의 극점이다. 다른 표현으로 식주체 기능이 일체의 것에 기대지 않고 있을 때의 의식느낌 상태이다. 이는 곧 Unconditioned Consciousness 혹은 Unconditioned Feeling이다. 동사섭적인 표현으로는 돈망頓忘의 의식상태다.

어떠한가? 필자가 말하는 궁극의 가치가 감感으로 느껴지는가? 행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궁극의 가치라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행복에는 무상無常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복도 있을 것이요, 영원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복도 있을 것이다. 전자를 유위有爲의 행복이라 하고 후자를 무위無爲의 행복이라 할 것이다. 이때 깨달음으로 인한 느낌인 각수覺受, 곧 사捨2란 바로 무위無爲의 행복이다. 사捨2, 각수覺受, 돈망頓忘, 무위無爲의 행복, 해탈解脫, 니르바나, Unconditioned Consciousness, Unconditioned Feeling 등이 모두 같은 뜻의 다른 이름들이다. 여기에서 힘주어 강조하거니와 그 여러 이름들로 표현되는 것들은 ‘느낌’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점이다.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

1) 동사섭문화에서 훤대란 감정의 단서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상장을 받고 기뻐다면 ‘기쁨’은 불꽃이라 하고 ‘상장을 받음’은 훤대라고 한다.

재미있게도 큰스님의 그 한마디에 그때까지 내 심신(心身)에 감돌고 있던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일시에 가라앉아버렸다.
 그 분은 이러한 나의 마음을 감지(感知)라도 하신 듯이
 “그러나 색즉공(色卽空)을 그 정도로 터득한 불교인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이으셨다.

는다면 파삭 마른 관념구에 불과함을 깊게 인식해야 한다. 지고(至高)하
 게 순수한 느낌으로 느껴지는 이 의식(意識)들이 바로 ‘궁극의 가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궁극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면 한다.

061. 색즉시공(色卽是空)과 나의 입산(入山) 계기

돈망(頓忘)이라는 깨달음 체계의 첫 단서(端緒)가 되는, 필자의 라이프
 스토리 한 토막을 회고해본다.

1962년 전남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한 것은 바로 삭발위승(削髮爲僧)(머
 리를 깎고 승려가 됨)이 전제된 운명의 마당에 들어선 것이었는지도 모른
 다. 철학과에서 만난 두 친구가 나의 입산에 직접적인 인연이 되어 주
 었으니 말이다. 한 사람은 청화대선사(淸華大禪師)의 속가 제자이자 출가
 제자인 김웅이요, 다른 한 사람은 고등학교시절부터 불교에 심취하였
 던 윤재태이다.

2학년 4월쯤이었다. 윤재태가 교정 잔디밭에 누워 염불을 하고 있
 었는데, 그 소리는 가히 음악 이상(以上)이었다. 그 염불 소리에 반해서
 나도 그것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접근한 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
 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 염불의 내용은 반야심경(般若心經)이었다. 나는
 반야심경을 배우게 되었고, 그 친구처럼 음악성을 발휘할 수는 없었지
 만 그 뜻에 이끌리게 되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色卽是空!” 존재하는 것이 비었다니 이 웬 말인가? 이것에 걸려든 것이 결국 인생 일대의 행운이 되었다고 본다. ‘왜 색이 공인가?’ ‘왜 존재하는 것이 없음인가?’ ‘왜 내 앞에 엄연하게 전개되는 현상들이 공하다는 말인가?’ 기억컨대 2개월 정도 그 주제의 언저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렸던 것 같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그가 친구이든 교수이든 스님이든 색이 왜 공이냐고 물었고, 관계되는 서책들을 닦치는 대로 열람했지만 만족스런 답을 얻어낼 수 없었다. 답의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 있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무엇인가로부터 어떤 힌트가 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면서 문제의 색즉시공을 납득納得하게 되었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안고 몇 날이고 맘을 뽁뽁 흘리면서 광주 시내를 돌아다녔다. 그것은 나의 첫 종교적 체험이자 나의 생애에서 하늘을 가르는 듯한 폭발적인 기쁨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그 후 50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을 회고해보면 그것은 나의 생 전반을 지배해 온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진로를 크게 바꾸어 놓을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다. 청화 큰스님의 제자인 김웅金雄과 같은 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로부터 “최 형은 청화스님을 한 번만 만나면 중이 될 것 같소.”라는 말을 몇 차 고 듣고 있는 터였다. 어느 날 드디어 “문안입니다.”하는 인사와 함께 청화淸華 스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셨다. 23세의 대학생과 41세의 수도승의 해후상봉邂逅相逢이 이루어진 것이다.

김웅이 엽불처럼 외위대던 청화스님! 그런데 그 분을 만난 나의 제1감은 실소였다. 그냥 한 사람, 한 명의 중이 나타난 것이다. 무언가 보통 사람과는 유별나게 다른, 특이한 존재일 것만 같던 나의 상상 속 청화 스님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점점

비범非凡한 존재로 내 속에 자리매김 되었다. 좌우지간, 청화 큰스님과 나의 만남은 나의 진로를 급회전시키게 되었다.

큰스님과의 첫 만남에서 나의 '색즉시공'에 대한 체험이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처음 그 분을 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비장秘藏되어 있는 나의 '색즉시공'의 살림을 고백하였다. 빙그레 미소를 짓고 계시던 큰스님의 첫 말씀은, “그것은 증오證悟가 아니고 해오解悟입니다.”였다. 불교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 백지상태인 나로서는 ‘증오’니 ‘해오’니 하는 개념이 이해될 리는 없었지만 무언가 별것 아니라는 뜻으로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재미있게도 큰스님의 그 한마디에 그때까지 내 심신心身에 감돌고 있던 형언할 수 없는 벽찬 감동이 일시에 가라앉아버렸다. 그 분은 이러한 나의 마음을 감지感知라도 하신 듯이 “그러나 색즉공色卽空을 그 정도로 터득한 불교인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이으셨다. 그 말씀에 나의 철없는 마음은 다시 어떤 나락奈落에서 일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큰스님께서 광주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시겠다고 임동 부근에 자취방을 얻으셨고 나는 큰스님의 자취방을 자주 드나들면서 공부지도를 받았다. 용이는 휴학을 했다. 용이는 나와 큰스님의 인연만 맺어주고 큰스님께서 세우신 학교요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운남 고등공민학교 선생으로 내려가 버렸다. 큰스님께서 광주에 절을 두고 싶은 마음을 비치셨다. 나는 큰스님을 모시고 절터를 찾아 이곳저곳을 다니던 중 조선대학교 뒤에 절처럼 생긴 별장 하나를 발견하였다. 큰스님께서 그 별장을 사찰로 전환한다면 큰스님께서 원하는 규모로는 아주 적격인 절이 되겠다고 여기셨다. 부근 인가에 가서 알아본즉 광주극장 부사장이신 조응원 씨의 별장이었다. 나의 철학과 교수요 광주 불교학 생운동을 하시는 정종구 교수님께 사정을 이야기하여, 교수님과 함께

큰스님을 모시고 광주극장에 계시는 조응원 씨를 방문했다. 그 방문에서 지금도 잊지 못할 기억 하나는 큰스님과 조응원 씨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의 마당에 서리어 흐르던 큰스님의 위엄(威儀)과 법력(法力)이었다. 조응원 씨는 큰스님과 몇 마디 나누신 다음 즉시 절로 쓰시라고 허락하셨다.

이리하여 급진적으로 조응원 씨의 별장은 사찰로 바뀌었다. 절 이름은 추강(秋江)이라는 조응원 씨의 호를 따서 '추강사(秋江寺)'라 정하고 큰스님 친필로 추강사 현판을 달았다. 나는 큰스님 뵈은 지 1년 후인 1964년 대학 3학년 8월 15일 추강사에서 큰스님의 첫 상좌로 삭발(削髮) 위승(爲僧) 하였다. 그 후 수년 사이에 추강사에서 중이 된 분으로는 원명스님, 법성스님, 행원스님, 승조스님, 노老 보덕 비구니 스님 등으로 기억난다. 주지(住持)로는 원명스님, 보영 비구니 스님 등이 역임하였다. 내가 1974년 봄, 8년 6개월의 교직을 정리하고 재입산하여 큰스님으로부터 중수계(重受戒) (승려인 자가 승려생활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승려가 되는 의식(儀式))을 받았던 곳도 이 절이니 지금은 사라져 흔적도 없는 이 추강사는 나에게 있어서 잊힐 수 없는 절이다. 현재는 조선대학교 구내 프로젝트로 주변 모든 주택들과 사찰들이 정리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추강사(秋江寺)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지라 법당 건물은 그대로 옮겨져 지금 광주 증심사 부근에 복원(復元)되었다고 한다.


수행자로서 마땅히 그러해야 할 모습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온몸으로 그 청정(淸淨)을 보여주신 청화 큰스님! 40대의 젊은 수도승, 큰스님의 단식, 큰스님의 무수한 소참 법문들, 동광사(東光寺)까지 걸어 다니시면서 일요법회에서 참신한 설법으로 광주 불교인들에게 수도(修道) 불교의 지평(地平)을 열어주신 큰스님, 학생 신분인 사미(沙彌) 용타(龍陀)를 아무 내색 없이 수용하시면서 공양주 소임으로 함께 했던 금성스님, 가

꿈속에서 들었다는 색즉시공色卽是空을 해결한 힌트가 무엇이었을까
그 말은 “프리즘을 없애라!”였다.
이 말씀은 진정 평이한 것이지만
내 생애에서 최초의 영성체험을 가져다주었고
칸트의 물자체物自體 사상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꿈 나타나셔서 천상의 목소리로 천수경을 송하면서 도량석道場釋을 하여 새벽의 정적을 싱그럽게 깨뜨려내던 정법스님, 추강사에서 전남대학까지 7km를 걸어서 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았던 젊은 날의 다양한 추억들을 담고 있는 것이 추강사秋江寺였다.

필자의 한 토막 라이프 스토리를 나누어보았다. 이 한 토막 이야기에서 꿈속에서 들었다는 색즉시공色卽是空을 해결한 힌트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할 것이다. 한 세월을 소중하고 신비한 보물처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숨겨오기만 했던 부분이다. 이제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다. 색즉시공의 해결과 더불어 다가온 체험은 분명 정서적으로는 큰 볼륨의 체험이었지만 그 내용은 극히 상식적이고 이성理性的인 단순 명료한 이치理致였다. 물론 꿈속에서 들었다는 소리 역시 신비도 무엇도 아닌 극히 평이平易한 말이었다. 그 말은 “프리즘을 없애라!”였다. 프리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씀은 진정 평이한 것이지만 내 생애에서 최초의 영성체험을 가져다주었고, 칸트의 물자체物自體 사상을 이해하게 해주었고, 인간 일반이 범역사적으로 주관성의 함정에 빠져서 갇은 고통과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참혹한 질곡의 현실을 이해하게 해주었으며, 한 평생 나의 수행修行의 토대가 되어주었다. 특히 나의 경험이 주관적인 신비 체험이 아니고 그렇게 사유思惟하기만 하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보편적

인 법리法理라는 점이 진정 다행으로 느껴지곤 한다. 아무튼 필자가 여성가로 살아오면서 가졌던 수 차례의 체험 중 대학 2학년 시절의 색즉시공色卽是空 체험은 최초의 것이자 가장 강렬했던 경험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회주, 성륜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10분 해탈』 등이 있다.